

# 중기청, 숨은 규제 발굴에 주력, 현장으로 해소에 힘쓰기로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에서 밝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TF」 운영을 통해 읍부즈만 및 11개 지방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유관기관과 함께 숨은 규제 발굴에 주력하여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힘쓰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주)

중소기업청은 전사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매월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4월 7일 첫 회의에서는 2014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지방청, 유관기관 등과 함께 애로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청단위로는 유일하게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 실시기관으로 되어 금년 7월부터 실시에 들어가고, 중기청 및 유관기관의 법규와 사업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금년 내로 기존 등록규제 12% 수준 감축, 미등록 규제 발굴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타부처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 읍부즈만, 지방중기청, 유관기관이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TF팀,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 7일자로 규제영향평가 과장, 담당사무관을 “규제개혁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산업기술대 이경원 교수를 초빙하여 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적 발상을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여 전직원이 창조적인 규제개혁 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이경원 교수는 최근 사회이슈가 된 ‘푸드 트럭, 공인인증서 기반 결제’ 등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규제개혁 아이디어 도출에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인 트리즈(TRIZ)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연하였다.

· 트리즈(TRIZ) : 수십만 특허 성공사례를 분석, 성공요인을 도출해 개발한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으로 최근 포스코, 삼성 등 민간에서 도입하여 활용중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중소기업청, 읍부즈만, 지방청, 유관기관 모두 중소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규제개혁이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닿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문의 ▶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 (042-481-4555)